



“인생의 그릇을 비우신 이유”
(룻 1:19-22)

■ 들어가는 말

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 신경이 곤두섰거나 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까? 한번 나누어 봅시다.

■ 말씀 속으로 - 들어가 봅시다. (룻 1:19-22)

- 19.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
- 20.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
- 21.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
- 22.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

1.베들레헴 온 성읍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그 이름을 부르자, 나 오미는 자기를 무엇이라 부르라고 합니까? 이유가 무엇입니까?

(20절)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

2.나오미는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?

(21절)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 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 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

3.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?

=>풍족함에서 텅 비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. 때때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 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붙들거나 만족해하던 인생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버리십니다.

4.나오미는 그동안의 겪은 고통 때문에 자기 이름마저 부정해 버립니다. 무엇을 느낍니까?

=>다시금 사람은 참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지금까지의 삶의 무 게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좋은 뜻을 가진 이름까지 부정해버리고 회피 하고자 하는 여인의 수치심, 그리고 힘겨워함이 느껴집니다.

5.내 인생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까?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

=>개인적으로 고민해보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. 그리고 모인 각각의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.